

숙박업소·음식점 직원 64%, 지난해 월 '200만원'도 못 벌었다

통계청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저소득 근로자 비중은 전 산업 중 '2번째'
4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는 가장 적어
제조업은 거꾸로...저소득자↓ 고소득자↑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며 임금을 받는 직장인 중 64%가량이 월 200만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여파다.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125만1000명)의 27.9%

가 100만원 미만을 받았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35.9%, 200만~300만원 미만은 29.2%, 300만~400만원 미만은 5.4%, 400만원 이상은 1.6%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저소득 근로자 비중은 63.8%에 이른다.
농림·어업(64.5%)에 이어 전 산업에서 2번째로 높고, 전체 평균치

(32.5%)의 2배나 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 400만원 이상을 받은 고소득 근로자 비중(1.6%)은 전 산업에서 가장 낮다. 2번째로 낮은 농림·어업(4.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을 받은 근로자 비중은 27.8%에서 27.9%로 0.1%p포인트(p) 증가했고, 100만~200만원 근로자 비중은 36.7%에서 35.9%로 0.8%p 감소했다.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근로자 수 자체가 18만3000명이나 감소한 여파가 크다.
도매 및 소매업 임금 근로자 상황도 비슷하다. 1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은 8.8%에서 9.6%로 0.8%p 증가했다. 100만~200만원 미만 근로자

는 29.1%에서 26.2%로 2.9%p 감소했다. 저소득 근로자 비중이 작아졌지만,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230만7000→215만1000명)했다. 200만원 미만을 받은 저소득 근로자 비중은 35.8%다.
반면 코로나19 여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제조업은 1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2.1%에서 1.9%로 0.2%p, 100만~200만원 미만 근로자는 15.9%에서 14.3%로 1.6%p 각각 감소했다. 4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 비중은 0.7%p 증가했다. 근로자 수는 393만9000명에서 385만2000명으로 감소 폭은 비교적 작다.
9개 직업 대분류별 임금 수준 비중을 봐도 서비스업 종사자의 20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59.8%로



단순 노무업 종사자(70.1%)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서비스업과 비슷한 판매업 종사자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43.0%로 높은 편에 속한다.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6.4%다. 관리직은 0.8%에 불과하다. 서순욱기자



“전국 유명 산지 토마토 맛보세요” 메가마트는 오는 27일까지 부산 대저와 전북 임실, 경북 상주, 전남 화순 등 전국에서 생산한 인기 토마토 15종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전국 유명 산지 토마토 대전'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에서 직원들이 토마토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美포브스지 선정 '아시아 20대 리더', 한국 스타트업 15인 선정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1년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우리나라 청년 스타트업 15인이 포함됐다.
포브스지는 아시아에서 분야별 30명씩 총 300인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1년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한국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15인이 포함됐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인물들은 김기민(28) 더

카본스튜디오 대표, 황태일(28) 글로랑 대표, 최훈민(25) 테이블네이지 대표 등 15인이다.
이들은 모두 중기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포브스지에 선정된 청년 스타트업 15개사 모두 팀스(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사업 등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창업 초기 사업화 지원과 멘토링

등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우리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청년 스타트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철승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의 우수한 성과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기동취재본부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과...“24명 오류 추가 확인”

“장비 증설·교체 작업 중 고객 정보 설정에 오류 생겨”
“24명 고객 정보 오류 확인...요금 감면 조치 할 것”

KT가 최근 논란이 된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놨다.
KT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임직원 일종의 사과문에서 “KT를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최근 발생한 10GIGA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불편을 겪으신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KT는 “이런 품질 저하의 원인을 파악

약한 결과 10GIGA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신속히 10GIGA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총 24명의 고객 정보 오류를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며 “또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KT는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에게 개별 안내를 드려 사

과의 말씀과 함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 감면을 해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10GIGA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KT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섬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쳤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태 조사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최이슬기자

“무알코올 제품이 뜬다”...변화는 주류시장 트렌드

“취하기보다 즐긴다”...MZ세대, 저도수 주류 선호 경향 높아
무알코올 시장, 다양한 사업자 진입 후 시장 규모 키우는 중



주류시장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위스키 등 과거 높은 도수의 주류가 애주가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주축으로 저도수 주류·무알코올 음료 선호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취할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에 주류업계에서도 MZ세대를 겨냥한 무알코올 음료를 선보이며 흡출, 혼술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2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업계 추산으로 2019년 기준으로 약 100억원 규모다. 약 4조원이 넘는 맥주 시장 대비 0.0025% 수준이다.
지난해까지는 하이트제로음료가 지난 2012년 출시한 '하이트제로 0.0'과 롯데칠성음료가 2017년 출시한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가 양분하는 구도로 시장이 형성·유지됐다.

이런 양강 구도는 지난해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청따오가 무알코올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입했다.
연말에는 오비맥주가 카스 0.0를 선보였다.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던 하이트제로는 하이트제로 0.0를 리뉴얼 출시하며 수성에 나섰다.
경쟁구도가 다각화된 이후 무알코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졌고 새롭게 선보인 제품들은 무알코올 제품이라는 특성상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가능한 점을 적극 활용해 높은 판매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스 0.0는 지난해 11월26일 쿠팡에 입점한 이후 판매 시작 7일만에 초도 물량 5282 박스 완판을 기록하는 등 일시 품절 사태를 겪었다. 이후에도 카스 0.0는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청따오의 무알코올 제품은 올해 1분기(1~3월) 판매량이 지난해 4분기(10~12월) 대비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채널 판매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97% 증가했다. 청따오는 1분기 수요 급증으로 재고량 부족을 겪기도 했다.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며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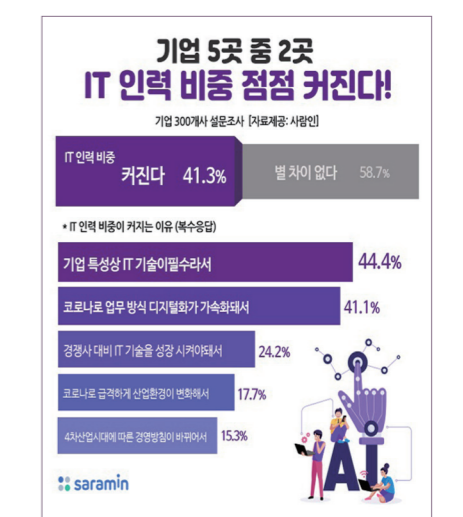
하이네켄은 '하이네켄 0.0'을 국내에 선보였다. 세계 무알코올 맥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유럽, 북미, 남아프리카, 러시아, 호주 등 94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이네켄 제로는 150·330·500ml 캔과 330ml 병 총 4종으로 출시됐다.
패키지 디자인은 하이네켄 오리지널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라벨과 뚜껑을 파란색으로 바꿨다.
일하는 '발양산 막걸리 제로'를 출시했다. 발양산 막걸리 제로는 강원도 평창군의 특산물인 '발양산 막걸리'가 함유된 제품으로 제조공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한 비알코올 막걸리 탄산음료다.
발양산 막걸리 제로에는 프락토올리고당 1.6g 함유돼 있어 탄산음료 최초로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에 등록됐다. 이외에도 유산균 사균제 100억 마리도 함유돼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회식이 줄어들고 흡술, 혼술 트렌드가 확산된 이후 혼자서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무알코올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졌다”며 “임산부만 즐기는 술이라는 인식보다 건강을 챙기려는 술로 젊은 세대와 여성에게 인기”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기업 5곳 중 2곳 “IT인력 비중 점점 커지는 중”

평균적으로 IT직무자들 비중도 기존보다 3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게임 관련 기업들의 IT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반 기업들 내부의 IT 관련 인력 비중도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IT 직무 비중을 늘렸고 그에 따른 인재 영입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20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IT인력 비중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41.3%가 최근 IT인력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기업 특성상 IT기술이 필수라서'(44.4%)와 '코로나19로 업무 방식 디지털화가 가속화해서'(41.1%)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이 밖에 '경쟁사 대비 IT기술을 성장시켜야 돼서'(24.2%),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산업 환경이 변화해서'(17.7%),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경영방향이 바뀌어서'(15.3%) 등이 있었다.
평균적으로 IT직무자들의 비중도 기존보다 3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

계됐다.
가장 필요한 부분(복수응답)으로는 '개발자(SW·SI·QA 등)'(49.1%)가 가장 많았으며,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운영'(44.3%), 'AI·빅데이터 전문가'(25%)가 각각 2, 3위였다.
하지만 과반의 기업들은(45.7%) IT인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채용공고에 맞는 사람을 뽑기가 힘들다'(62.8%·복수응답)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지원자 수가 적어서'(43.1%), '연봉이 너무 높아서'(35%), '인재 채용 경쟁이 심해서'(22.6%), 'IT 인력 채용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없어서'(10.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업들은 IT인재 유지 및 유지를 위해 'IT인력 위주의 전문 채용 플랫폼'(42.3%·복수응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40.1%), '연봉 인상'(32.1%), '성장 가능성'(25.5%) 등이 인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IT 인재의 중요성 변화에는 코로나19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존보다 IT 인력의 역할이나 비중이 강화됐다



(61%)는 기업이 다수였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빨라지고 있는 만큼 '우수인재 채용 보조금 지원'(51.3%·복수응답)과 같은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이 밖에 '보조금·세제 혜택'(40%), '경영진 마인드 변화'(29.3%), 'R&D 재정 지원'(29%), '기존 인력 교육 지원 제도 강화'(28.3%) 등도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꼽았다.
오유나기자